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박원준	학번	
이메일	wonjoonpark@hot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Georgetown Univ. / MPM	(국가) USA
기 간	2019.12 – 2020.12	[귀국일: 2020년 12월 24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0년 12월 일

신 청 인 : 박 원 준 (인)

-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 ◆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조지타운 대학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편의시설은 물론 정부건물 및 박물관 등 중요시설들과의 인접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2019년 겨울의 경우에는 눈이 한번만 왔을 정도로 혹한이 찾아오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는 살수 없을 정도로 한국과 마찬가지로의 극심한 더위가 있다. 뉴욕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는 40불 정도 (편도) 수준의 대형버스가 있어서 굳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여행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하에서는 타 도시로 진입시 의무적 2주 쿼런틴이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많이 줄었지만, 이는 백신 보급과 함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코비드 19의 변종이 발생한다면, 향후 학생들도 2020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시설이 한국보다 부족하고, 의료체계 이용비용 자체도 한국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코비드 19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극도의 생활제약과 학업 외의 것들에 대한 포기가 필요하다. 조지타운대에서 학업을 하더라도 마지막 학기에는 다소 여유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구입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다. 우버 등의 소셜미디어 기반 교통시설이 미국인들에게는 택시보다 더욱 보편적이다. 쇼핑이나 여행 외의 경우에는 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릴랜드나 버지니아의 경우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한달정도면 미국면허증을 별도의 시험 없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잘 나와 있다.
-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조지타운대의 교육의 퀄리티는 예상한 것 이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강의 내용도 매우 심도 깊었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무난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려는 교수님들의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줌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줌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편리하게 1대1 토론,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도중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질문하거나, 수없이 요구되는 각종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교수님들과 상의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학생들과 같이 무난히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인 느낌은 교수님들이 매우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으며,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친절함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 ◆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조지타운대 맥코트 스쿨에서 KDI 와 제휴를 맺고 있는 과정은 1년안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MPM (Master of Public Management) 과정이다. 미국인 학생의 경우 학기당 (총 3학기로 구성됨) 4과목씩 총 1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KDI 학생의 경우, 학기당 3과목씩 총 9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KDI에서 이수한 과목중 3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최종 학위취득을

위해 총 12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학기당 한과목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큰 메리트이다. 학업부담도 줄어들지만, 그 만큼 세이브된 시간을 3과목에 집중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3학기 동안 수강해야 하는 전체 9과목중에서 이미 7과목은 정해져 있다. 선택과목은 2개만 수강할 수 있는데 과목별로 난이도와 숙제의 양, 평가기준 등이 교수의 성향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사전에 알아보고 선택과목을 택하는 것이 좋다. MPM 과정의 최대 다수 그룹은 미 육사 출신의 대위들이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매우 우수한 편이고, 친구로서 사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검증된 자원들이다.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공무원에 대해 우호적인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개인적인 노력을 들인다면 충분히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다. 미군 학생들은 각종 과목들의 특징과 난이도에 대해 자신들의 선배들로부터 전해지는 누적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훨씬 수월한 과목을 고를 수 있다. 각 수업은 대체로 13번 혹은 15번의 강의로 진행된다. 수업은 매주 1회만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으며 모든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진행된다. KDI 학생의 경우, 3과목을 학기당 수강하므로, 시간표를 잘 짜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학교에 나가게 된다. 물론 줌으로 진행될 경우, 집에서 1주에 이틀 정보만 수업에 할애하면 된다. 수업과 함께 거의 매주 크고 작은 과제들이 부여된다. 이러한 작은 과제들과 함께, 큰 페이퍼 2개와 발표 1-2회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줌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별 발표, 조별 발표 등은 전혀 불편함 없이 진행된다. 줌으로 인해서 수업진행이 loose 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intensive 해지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직접 대면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의 직접적 피드백의 강도는 낮다. 이런 점은 줌의 단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지타운에서는 졸업을 위해 논문작성을 요구한다. 다행인 것은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목을 가을학기 3과목중의 하나로 구성하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에는 일반과목 2개를 들으면서 논문을 하나 작성하면 된다. 개인별로 담당교수가 정해지며, 각 교수는 약 5-6명을 동시에 지도한다. 논문의 길이는 대략 30페이지 (더블 스페이스) 수준이나, 교수가 요구하는 논문의 프레임을 따라가며 작성하다 보면 30페이지는 쉽게 넘고 거의 40페이지에 육박하게 된다. 각 단계 (총 6-7단계) 별로 교수의 요구대로 논문을 작성하면, 수정 방향을 표시해서 피드백을 해주게 된다. 수정 전 상태를 각각 채점하며, 최종적으로 전체 논문을 평가할 때는 교수의 수정요구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도 점점 받게 된다. 교수의 수정요구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 다소 지엽적인 사항이나, 추가적인 구체적 근거가 첨부되면 좋겠다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정요구를 반영하는 작업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 특히, 논문의 전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 혹은 사회이슈에 대해서 대안을 3가지 제시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에 따라서는 외국인 학생은 자신의 모국의 사회

문제를 주제로 삼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굳이 잘 모르는 미국 이슈를 억지로 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논문 작성이 훨씬 수월하게 된다.

-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본인의 경우, 줌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면서, 학교측이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쉬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렌트했다. 원 베드룸이 아닌 원룸 스타일인데도 월세는 2200불 수준이었다. 줌으로 하는 수업이 대세가 된다면, 굳이 통학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럴 경우 1500불 수준의 아파트도 많이 있다고 들었다. 아파트 렌트 문제는 발품을 많이 팔수록 자신의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찾게 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좋을 것이다. 우버 Eats를 이용하면 주변의 유명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 받을 수 있는데, 음식값 외에 서비스비용, 팁 등이 적지 않아 이용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하지만 차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다. 학교내에 있는 식당의 질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다. 가격에 비해 영양적 측면은 모르겠으나, 맛은 확실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오랜기간 조지타운대를 다닌 학생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 밖의 식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들었다. 가끔 한식을 먹고 싶다면 우버를 이용하여 아난데일 지역의 유명 한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아니면 한인마트에서 식재료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배달받는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반적인 식재료는 아마존 fresh, pantry 혹은 아마존과 제휴된 whole foods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매, 배송 받을 수 있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 등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미국 유학생할 기간중에는 프라임 가입을 고려해 보기를 추천한다.
-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학교생활에서 수업 외의 활동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학교 메일 계정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안내가 오기는 하지만, 모두 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줌 수업에서 오는 피곤함을 추가적으로 갖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교측은 정말 많은 줌 기반 이벤트를 개최한다. 그 때마다 이벤트 안내 메일을 보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슈가 있다면, 이러한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2년차에 듀얼 디그리 과정을 택하는 것은 비학위 과정을 택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지타운의 경우 여름학기 마무리까지는 정말 강도높은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여름학기의 3과목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강도의 수업이다. 물론 학위 취득만이 목적이라면 혹은 수업 내용의 이해나 학점 등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수월하게 대충 수업준비에 시간을 최소한 할애하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싼 학비를 들여서 멀리 이곳 미국에서 무언가 배우고 가겠다고 왔다면, 기왕 하는 공부를 열

심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KDI 때보다는 몇배 더 힘든 3학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고 3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KDI 학생들은 이미 나이도 상당하고 학습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타운에서의 듀얼 디그리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

-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는 조지타운측에서 전체적인 일정에 맞게 각종 서류들을 보내준다. 어드미션과 동시에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므로 학교측에서 보내온 메일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단계별로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2년차를 어떻게 보내는 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학위든 비학위든 모두 장단점이 있다. 어느 한 편이 전적으로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자신의 목표와 선호에 따라 어느 한 편을 택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의 선택은 조지타운에서의 학위였고,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고, 매우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면서, 각자가 선택한 방향에서 최고로 의미 있는 미국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란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혜리	학번	
이메일	hk874@georgetown.edu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Georgetown university/ MPM	(국가) U.S.
기 간	2019.12. – 2020.12.	[귀국일 2021년 1월 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조지타운이 위치한 워싱턴 DC는 동부에 위치하고, 기후는 한국과 유사하게 4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다만 3년 전에는 겨울에 혹한이 있었으나 제가 머물렀던 2년 동안에는 이상기후로 겨울에도 눈이 거의 오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때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림).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로 다른 도시들과 달리 주택가보다는 관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보다는 훨씬 거리가 깨끗한 편입니다. DC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링컨기념관부터 미국 의회까지 이어진 큰 공원이고 그 길을 따라 여러 정부시설들과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장할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머무르는 동안에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 거의 휴업이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공원 자체도 매우 잘 구성되어 있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종종 그쪽으로 걸어서 산책을 다녔습니다. Black Lives Matter처럼 대규모 시위사태가 없을 때에는 현지인들이 조깅을 하거나 돛자리를 가져와 피크닉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그 거리를 벗어나 아담스 모건이나 유니언마켓 쪽은 총기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여성 혼자 다니기 조금 위험해 보였습니다.

조지타운 쪽은 COS, 토리버치, 세포라 등 여러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맛집이 많아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포토맥 강을 따라 고급 해산물 음식점 (Fiola mare 등)이 있고 이탈리아 음식점 (Il Canale, Filomena Ristorante 등)들도 유명합니다. Blue Bottle 등 커피숍도 많고 Martin Tavern이란 케네디대통령이 프 로포즈를 한 미국 음식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컵케익(Georgetown cupcake, baked & wired, sprinkles)과 뉴욕 외 첫 지점을 작년에 낸 Levain쿠키가 유명합니다. 쇼핑거리 위쪽에는 알록달록 예쁜 주택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 주택가이고 관광객도 많은 편이라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보행자가 거의 없어서 저녁엔 거의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차가 없었지만 조지타운에서 키브릿지만 지나면 있는 로슬린에 숙소를 잡아서 자주 조지타운 쪽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브랜드 옷, 잡화를 할인해서 파는 TJ Maxx를 주로 방문해서 쇼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입장인원 제한, 마스크 의무화, 피팅룸 폐쇄, 6 feet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지조치가 취해졌지만 영업은 계속 하였습니다. 음식점도 저는 대부분 pick up하여 집에서 먹었습니다만 야외 테라스를 개방하여 그 곳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죽없이 혼자 가서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숙소를 잡고 차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도보로 safeway, target, wholefoods, trader's joe 등을 갈 수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DC나 로슬린 쪽은 주차비가 비싸서 차보다는 대중교통이 훨씬 편했습니다. 코로나로 대중교통 이용이 꺼려질 때는 그냥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한인마트인 H마트나 근교 국립공원(great falls, Shenandoah) 등을 가려면 차가 없으면 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버로 갈 수는 있으나 거리가 멀어 매우 비쌌) 저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H마트를 다녔습니다. Fairfax나 Annandale쪽은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 한국음식점 및 상점도 많습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 혹시나 영어로 은행업무나 차량구입을 하기 불안하시면 Fairfax쪽 BOA나 한국자동차에서는 한국어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물가는 비싼 편입니다. 월세도 다른 곳들에 비해 비싸고, 외식비도 세금에 팁까지 하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식재료들도 한국에 비해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아마존이나 우버이츠, 각종 쇼핑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쇼핑도 꽤 했는데 한국만큼 빠르진 않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배송문제 없이 왔습니다. 차가 없어서 아울렛을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아울렛은 버버리, 폴로랄프로렌, 나이키 등 브랜드가 거의 상시 할인하고 있었습니다. TJ Maxx, Nodstrom Rack 등의 상설할인매장은 도보로 갈 수 있어 자주 방문했습니다. 백화점이나 각종 브랜드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할인품목이 많이 있고 콜롬버스 데이 등 연휴에 자주 할인행사를 하니 관심있는 브랜드는 계속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유용한 할인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이 매우 친절하고 학생들도 저희를 배려해 줘서 수업 분위기는 모두 좋은 편이었습니다. MPM과정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고 특히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사회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반 대학원 과정과 비교할 때 학술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보다는 이론을 현실에 접목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맥코트스쿨(행정대학원) 내 다른 과정(MPP)보다는 부담이 적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주어진 자료를 미리 읽었다는 전제 하에 토론이나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수업이 Canvas(수업관리시스템)나 Syllabus에 상세하게 해야 할 것들이 나와있고 그대로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리딩의 경우 매주 200쪽 이상을 요구하는 수업도 있다고 들었으나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제가 들은 수업들의 리딩은 걱정했던 것보다 많지 않아 일주일 동안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은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초반 1~2개월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채팅프로그램인 zoom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녹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전체 수업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학생이 얼굴을 공개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다들 익숙치 않아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업 중 팀별로 따로 방을 만들어 토론시키고 자료나 질문을 채팅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강의를 녹화하여 Canvas에 올려주는 등 좋은 점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집중하기 어렵고 가을학기 마지막에는 교수나 학생 모두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제스처나 분위기를 읽기가 어려워 오프라인보다 영어(특히 학생들 간 대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교수님들이 수업을 잘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와 큰 차이 없이 무사히 학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KDI 학생들은 조지타운에 있는 1년(3학기) 동안 총 9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이 중 봄학기 2과목, 여름학기 3과목, 가을학기 2과목은 이미 필수로 정해져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봄학기 1과목, 가을학기 1과목뿐입니다. 선택과목의 수가 적고 조지타운은 다른 학교보다 KDI에서 나간 사람이 적어 정보가 많이 없으므로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대부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회사 업무와 가장 관련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였고, 봄학과 가을학기 모두 일주일에 이틀만 수업을 듣도록 시간표를 짰습니다. 필수과목들은 KDI에서 같이 간 사람들이 함께 듣지만 선택과목은 혼자 듣다 보니 그 수업에서 유일한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봄학기에는 Economy Analysis와 Program Evaluation 수업이 필수입니다. 경제학 수업은 경제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보니 KDI보다 쉬운 편이었습니다. 특히 Adam Thomas 교수는 개념 위주로 매우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 노력하고 zoom으로 수업이 바뀌자 개인적으로 칠판을 사서 강의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고 이미 경제학을 배우고 간 터라 가장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problem set이 있고 중간/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는 오프라인으로 치루었지만 기말고사는 온라인으로 교수가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zoom으로 카메라를 켜 두고 워드에 답을 쓰고 그래프는 사진을 따로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Program Evaluation (Prof. Hall) 은 정부정책의 수요, 절차, 효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 이론을 배우는 것으로 매주 논문 요약과제와 기말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하였습니다. 선택과목은 의회정치론이었는데, 매주 의회와 관련한 사람들을 초빙하여 실제적인 내용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의 없이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이라 가장 따라가기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중간/기말고사가 있었는데 메일로 문제를 보내면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작성하여 교수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름학기는 3과목 모두 필수이지만 4과목을 들어야 하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앞에 3과목을 몰아 듣거나 뒤에 3과목을 몰아 듣는 등 약간의 재량이 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월~토) 동안 하루종일 매일 듣는 방식이나 zoom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오전만 혹은 오후만 듣되 2주간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들은 Public Policy Process만 일주일이었고 MPM public management와 Ethics는 2주 간 들었습니다. Public Policy Process (Prof. Cammisa) 는 오전에 녹화된 강의를 듣고 Canvas에 게시된 퀴즈를 풀며 토론게시판에 수업과 관련한 개인 의견을 게시한 후 오후에는 토론 및 교수님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3개의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testimony하는 과제는 미국 정치를 몰라 좀 헤매기도 하였지만 매우 흥미롭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MPM mgmt. (Prof. Loss) 는 강의와 팀별 토론이 진행되고 PT발표 1번, 기말과제 2개를 제출하였습니다. Ethics (Prof. Holst) 수업은 초반 일주일만 교수님이 강의하고 후반 일주일만 학생

들이 seminar를 직접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외 조별발표 1번과 기말과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여름에 입학하기 때문에 여름학기가 첫 학기이고 거의 같은 수업을 오랜 기간 같이 듣기 때문에 원래라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 좋은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교류하기 어려워 아쉬웠습니다.

가을학기는 Research Method와 capstone project가 필수과목입니다. Research method (Prof. Jensen) 는 STATA 등 통계학 일부와 질적/양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논문분석, STATA 등 자잘한 팀별 과제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점수를 받기 위한 활동도 따로 있었습니다. 개인과제는 최종적으로 literature review를 쓰는 것입니다. capstone과 연계할 수 있으나 만약 capstone 주제가 외국 논문이 거의 없다면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Capstone (Prof. Bednarzik) 은 다른 학생들은 주제에 따라 교수님을 섭외하여야 하지만 가을학기 졸업은 몇 명 없어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줍니다. 싱글 스페이스로 30페이지 이상을 쓰면 되는데 2주마다 파트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므로 마지막에 몰아서 한번에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파트별로 제출하면 교수가 피드백을 주고 마지막에 이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캡스톤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는 구조인 걸 몰라서 여러 해결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한국에서의 익숙한 방식으로 구상했던 최초의 주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주제 선정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학기 선택과목은 federal budget process (Prof. Hall) 이었습니다. Hall 교수는 준비한 PT자료로 강의하고 4~5개의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토론이 거의 없어 지루하지만 편안히 들었습니다.

4.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조지타운은 대학원생에게 기숙사 제공이 안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성 혼자이고 차를 구매할 계획이 없어서 처음부터 학교 근처 도시에 집을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Zillow, 조지타운대학교 연계된 룸쉐어나 부동산 소개하는 사이트, 구글지도로 매물과 위치를 알아본 후 몇 개의 후보지를 선택하여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실물을 대신 봐 달라고 부탁한 후 출국 전에 인터넷으로 가계약을 끝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더 싼 곳이나 룸쉐어를 할까도 고민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거의 집에만 있어야 하는 코로나 상황에 1.5룸에 편히 살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RiverPlace South였는데 이 곳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라서 개별 집주인이 관리합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Wally Feng이라는 중개업자가 관리하는 곳인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끝내서 깔끔하였고 웬만한 가구(소파, 침대 등)이 다 갖춰져 있는 풀옵션이었습니다. 또한 전기, 수도 등이 월세에 다 포함되어 인터넷만 제가 따로 설치하면 되어서 매우 편했습니다. 데스크에서 택배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는 오래되었고 세탁실이 1층에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소음에 민감한 편이 아닌데 비행기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후기도 있었고 개

별 집주인이 관리하다보니 어떤 방들은 낡은 채로 있어 벌레가 자주 발생한다는 불만도 들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세입자에게 다 배정되지 않고 유료로 공간을 구매를 해서 주차비를 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보다 훨씬 시세가 싸고 (1.5룸에 월 1,750불) 위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3개 노선(옐로, 실버, 블루)이 지나가는 Rosslyn 지하철 역이 5분정도만 걸으면 있고 공원(루즈벨트 공원, U.S. Marine Corps War Memorial 등)도 주변에 많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산책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로슬린역까지 학교서들도 10~15분마다 있고 걸어서도 40여분정도밖에 안 걸렸으며 앞서 말했듯 생필품과 먹을 것도 도보로 이동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알링턴 국립공원을 통하면 링컨 메모리얼까지도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9층 건물에 7층에 공원 쪽 뷰라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단지 안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어 H마트를 굳이 안가도 한국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하였으나 만족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으므로 결국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조건(교통, 채광, 넓이 등)을 고려하여 여러 매물을 보면서 판단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그 외에 찾아본 곳에 대한 정보를 드리자면, 로슬린쪽에 있는 park georgetown은 가격이 싸나 가는 길이 으스스한 편이고 풀옵션이 아니라서 가구를 이케아에서 사거나 렌트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조지타운 위쪽 park crest는 주변이 주택가라 조용하고 학교와 더 가까우나 시설이 낡았고 셔틀이나 지하철이 없어 이동하기 불편했습니다. 로슬린 쪽 sedona/slate랑 1800 oak는 위치도 좋고 좀 더 최근에 지어서 깔끔하나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혼자인 분들에게는 Rosslyn 지역 주변을 추천하지만 가족끼리 가시는 분들은 좀 더 외곽의 비엔나, 애넌데일, 페어팩스 쪽을 추천합니다. 학군이 좋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며 가족단위로 살기 좋은 타운하우스나 싱글하우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5.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조지타운대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외에도 유명인사들이 강연을 많이 합니다. 2019년에는 마크 저커버그, 힐러리 클린턴이 왔었다고 들었고 2020년 코로나 전에는 비록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배우 제인 폰다 등이 왔습니다. 코로나 후에는 파우치 박사가 zoom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다큐멘터리 감독 Ken Burns 강연을 들었는데 비더만 형제가 거기 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므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분야가 있다면 메일이나 학교협의 행사게시판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조지타운대학교에서 writing center도 운영하므로 레포트를 내기 전에 받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 쪽에서 하는 센터는 재학생들이 봐주고 주로 내용을 지적해준다면, 맥코트스쿨은 Jeffrey Mayer라는 노교수가 문법/표현 위주로 봐줍니다. 전 주로 Grammarly로 확인한 후 Dr. Mayer에게 첨삭을 많이 부탁하였는데 손글씨가 알아보기 매우 힘들고 엄청 많이 고치지만 본인이 보고 바꿀 것만 바꾸고 못 알아보는 부분은 표시하여 다시 보내면 타이핑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맛집 탐방도 많이 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 답게 미술관 음식점 등 유명한 음식점이 많은데 위에서 언급한 조지타운 쪽 외에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식당을 몇 군데 꼽자면 Pho 75, Bethesda Bagle, Daikaya, Rasika, Del mar de favio trabocchi, Le Diplomate, Old ebbit grill 등입니다. 메릴랜드 쪽은 블루크랩이 유명하니 그것도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요리를 좀 싸게 제공하는 레스토랑 위크도 지역마다 1년에 2번 있으니 그 때 좀 비싼 레스토랑을 방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화생활의 경우 코로나 전에 케네디센터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세번 갔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더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공연을 하지 않아 매우 아쉬웠습니다. 금요일 낮공연은 15달러부터 시작이니 기회 되면 꼭 가시길 추천합니다. 르누와르의 Luncheon of the Boating Party로 유명한 필립스 컬렉션은 평일엔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도 코로나 전에 자연사박물관과 허쉬혼미술관을, 코로나 후에는 초상화박물관, 아프리카미국역사박물관, 아메리칸 히스토리뮤지엄, 렌윅미술관 등을 가 봤는데 무료로 유명 작품을 보는 호사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렌윅을 제외하고는 코로나로 입장인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무료이지만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했습니다. 유료인 스파이박물관은 스파이 관련 물품을 전시한 것 외에도 실제 지령을 받아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데 영어의 압박이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과 같이 가면 좋을 듯합니다. 포토맥 강에서 카약도 대여해 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 젓기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타기 힘드니 경험하시길 추천합니다.

6.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매우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원래 조지타운으로 결정하면서 학기 중엔 학업에 정진하되 여름방학 1달 동안 남미 일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비록 남미는 가지 못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생각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수업이 빡빡하기로 악명이 높지만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여름학기가 아닌 봄학기나 가을학기 중에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홀몸이고 리딩이 엄청 많은 수업이 없어서 가능하였겠지만). 봄학기에 월요일 오후와 화요일에 수업을 몰아넣고 학기 초반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2월)에 보스턴과 뉴올리언즈를 각각 3박4일로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가을학기 때도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에 수업을 몰아넣고 그 외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였습니다. 뉴욕주의 14일 쿼런틴 규정이 없었으면 뉴욕은 집 근처 버스정류장이 있어 매주 갈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생활을 해본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므로 저처럼 후배님들도 조심하되 후회 없이 다녀 오시길 바랍니다.

7.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조지타운은 다른 학교에 비해 결과를 늦게 알려줘서 걱정했지만 어드미션 이난 후 비자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자인터뷰의

경우 GMP 사람들은 소속이 확실하니 간단한 질문만 하고 끝났습니다. 미국 입국 때 운 없이 랜덤 짐검사에 걸렸는데 대기를 오래 해야 하고 공항직원이 짐을 다 열어보지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랜덤 검사에 걸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매우 비싸고 거기다 코로나 사태 때에는 병동도 부족하고 병원에 가기 더 두려워지니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체력은 중요합니다. 전 거의 매일 산책을 나가고 유튜브로 홈트를 하여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없고 숲이 많아 조강을 하기 좋았습니다. 거기다 학교보험을 가입하니 학교에서 무료 코로나검사와 독감예방주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독감예방주사는 무료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안내가 오니 필요한 메일은 꼼꼼히 읽고 지시사항에 따르시면 됩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확실히 조지타운대학교에서의 수업은 KDI 수업들보다 훨씬 힘듭니다.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토론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수업내용을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제 생각을 표현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들과 다른 학생들이 많이 친절히 배려해 주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예로 저는 여름학기 Ethics 때 직접 seminar를 주최하는 것에 엄청 부담을 느꼈습니다. 발표는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seminar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논점을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는 순발력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을 다루는 것이라 내용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주제가 정해지자마자 자료분석을 시작하였으나 감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니 우려와 달리 다른 학생들이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외국인학생을 배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미나에 대해서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지타운은 학비가 매우 비싸고 물가도 비싸 개인적인 지출이 상당히 듭니다. 비학위 과정보다 여유시간이 적고 영어공부보다는 학업에 더 치중하여야 하며 매 수업시간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아무 말이나 수업시간에 한마디 이상은 하자고 매번 각오를 다졌지만 문맥에 벗어난 말을 던져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때도 많았고 그마저도 못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해 영어실력이 오히려 퇴보한다고 느껴 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니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매우 큼니다. 정치의 중심지인 DC에 머무르면서 느끼고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탄핵 하원의결이나 미국의 대선과정 등 굵직한 정치적인 이벤트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얻을지는 본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후배님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얻길 기원합니다.